

제2언어 습득 과정의 음절 제약과 공모성 효과: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을 중심으로*

김태경 **

-차 례-

1. 머리말
2.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음절 구조 제약
3.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음절 구조 제약
4. 논의 및 결론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NRF-202000000002275)

** 한양대학교(ERICA) 창의융합교육원 부교수

[국문초록]

본 논문은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발음에서 /j/계 이중모음이 목표 단어의 음절 구조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을 제약 기반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다양한 오류형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본고에서는 전이음 /j/가 탈락하거나 다른 자음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모두 베트남어의 음절핵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단일한 동기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형식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유효성 제약에 속하는 음절 구조 제약들(*Complex(M), *P/palatal glide, *Complex(P), Onset, No Coda)과 충실성 제약에 속하는 분절음 탈락 금지(Max-IO), 자질 변화 금지(Ident-IO(F)) 제약의 세부 제약들 사이의 위계를 설정하였다.

주제어 : 음절 제약, 제2언어 습득, 베트남인 화자, 최적성 이론, /j/계 이중모음, 중간언어, 발음 오류

1. 머리말

근래에 들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발음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발음 연구는 주로 자음과 모음 체계를 대조하여 오류를 예측하거나 산출 오류를 조사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한 것이 대부분이다. 자음에 대한 연구로는 한국어의 폐쇄음과 파찰음의 삼지적 대립 관계에 집중하여 베트남인 화자의 평음·경음·격음 발음 오류를 다룬 논문이 주를 이룬다(김희정·박시균 2009, 강정희 2011, 김소현·김영주 2013, 김태경 2018 등). 그리고 한국어 음절 종성 발음 중에서는 /ㄹ/을 /ㄴ/과 혼동하는 오류가 빈번하다는 보고가 있다(김영선 2004, 신정애 2005, Do Ngoc Luyen 2015, 김태경 2018 등).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음 발음에 대한 연구는 자음 연구만큼 활발한 편은 아니다. 베트남어의 단모음 체계는 한국어의 단모음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 모음을 발음하는 데에 대체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조명숙 2006, Do Ngoc Luyen 2015 등).¹⁾ 반면, 이중모음에 대해서는 베트남어에 /w/계 이중모음만 있고 /j/계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j/계 이중모음 발음을 특히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 선행 연구(조명숙 2006, 김선정 2010, Do Ngoc Luyen 2015 등)에서 공통적으로 기술하였고, 김태경(2021)에서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j/계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전이음 또는 단모음이 탈락하거나 전이음과 단모음이 분리되어 전이음이 단모음화하는 현상, 전이음 /j/가 [ʒ, ɲ, ʎ] 등의 자음으로 대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²⁾

1) 단모음 발음과 관련하여 조명숙(2006)에서는 한국어의 /ㄴ/을 베트남어의 [ɲ]처럼 발음하지 않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2) 이 논문에서 제시된 발음 오류 사례는 <외국인 한국어 대화말뭉치>(https://hkli.hanyang.ac.kr)의 음성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자료의 수집은 경기도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조용한 실내 공간에서 화자 두 명이 한국어로 자유롭게 30분 간 대화하도록 하고 이를 녹음/전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베트남 출신의 화자는 총 133명으로,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 또는 결혼 이민자로서 지역 주민센터 등 외국인지원기관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고,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기간은 평균 4.6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가 주로 어떤 발음에 어려움을 겪는지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몇 가지 한계도 찾을 수 있다. 우선, 해당 발음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음운론적 설명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발음 과정에서 관찰되는 이중모음 산출 오류는 일반적으로 모국어 음운 체계의 간섭 현상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이처럼 단순히 화자의 모국어 영향 때문이라고 본다면 /j/계 이중모음에 대한 발음 오류가 왜 그렇게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목표언어인 한국어와 모국어인 베트남어의 음절 구조 제약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본고는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발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모음 산출 오류를 제약 기반 이론의 틀에서 살펴보고, 학습자들의 음산출에 작용하는 음절 구조 제약들의 유형과 그 상호 관계를 알아보려 한다. 이를 통해 제2언어 습득 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발음 오류 현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모국어와 목표어의 음절 구조 제약이 중간언어 산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음절 구조 제약

음절은 필수 성분인 음절핵(syllable nucleus)과 수의적 성분인 주변음(syllable margin)으로 구성된 최소의 운율 단위이다. 음절핵은 주로 모음으로 이루어지고 주변음은 자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각각의 음절 성분을 이루는 분절음의 수와 종류는 언어에 따라 다르다. 언어마다 허용하는 음절의 종류가 다른 것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Prince and Smolensky(1993)에서는 무표적 음절³⁾을 지향하는 요구

년, 연령 평균은 29.4세에 해당한다.

3) 음절 구성 성분에 대한 조건은 언어마다 다르지만, 모든 언어에 나타나는 가장 무표적인 음절 유형이 CV형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견해이다. 이것은 Jakobson(1962)에서 지적하였듯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나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을 갖고 있지 않은 언어는 있어도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을 갖고 있지 않은 언어는 없다는 사실로써 입증된다.

와 출력형과 입력형의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요구를 각각 유표성 제약과 충실성 제약으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주요 제약들의 목록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음절 구조에 관한 유표성 제약(Prince and Smolensky, 1993)

- Onset: 모든 음절은 음절초 자음을 가져야 한다.
- No Coda: 음절은 음절말 자음을 가지지 않는다.
- *Complex: 각 음절 구성단위는 하나의 분절음에만 연결된다.
- 연결 제약: 음절 상 위치에 따라 분절음의 특성을 결정짓는 제약군(family of constraints)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P, *M이 이에 속한다.
 - *P: 음절핵(peak)에는 공명도가 가장 높은 분절음이 위치한다.
 - *M: 음절비핵(margin)인 음절 두음(onset)이나 음절 말음(coda)에는 공명도가 가장 작은 분절음이 위치한다.

(2) 충실성 제약(McCarthy and Prince, 1995)

- Max-IO: 입력형에 나타난 모든 분절음은 출력형에 대응되는 요소를 가져야 한다.
- Dep-IO: 출력형에 나타난 모든 분절음은 입력형에 대응되는 요소를 가져야 한다.
- Ident-IO(F): 입력형의 한 분절음이 갖고 있는 자질 값은 출력형에서 그 대응소가 갖는 자질 값과 동일하다.

한국어의 음절은 모음(V)을 음절핵의 필수 성분으로 지니며, 모음 앞에 전이음(G)이 수의적으로 올 수 있다. 또한 음절 두음(onset)과 말음(coda) 위치에는 자음(C)이 각각 최대 하나까지 연결될 수 있다. 한국어의 음절 구성과 관련한 제약의 위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중모음을 포함한 음절을 살펴기에 앞서 좀 더 단순한 음절 구성부터 보기로 하자.

- (3) a. 가미[가미]
b. 감+ 이[가미]

수의적 성분을 괄호 안에 표시하면 한국어의 음절은 (C)(G)V(C) 유

형에 속한다. 그러므로 ‘-V1CV2-’와 같이 자음이 모음 사이에 놓이는 경우에는 해당 자음이 음절 두음 위치에 연결될 수도 있고 음절 말음 위치에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3)에서 보이듯이 이런 경우 C는 V2의 두음으로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CV 음절형을 가진 후보가 출력형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No Coda 제약이 요구된다. 물론 이 언어 보편적 제약은 다른 상위 제약, 예를 들어 충실성 제약이 기능하는 경우에는 흔히 위반된다. 자음이 음절 두음으로 기능하며 이 현상은 형태소 경계를 넘어서도 적용되는 것을 보면, 음절 말음을 회피하려는 제약이 음절 경계와 형태소 경계를 일치시키려는 제약의 우위에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는 Onset 제약과 No Coda 제약만으로도 올바른 후보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이 제약들이 음절 형성 과정에서 작용하는 양상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 ‘가미’의 음 산출 과정

	[kami]	Onset	No Coda
a.	kam.i	*	*
b.	☞ ka.mi		

<표 2> ‘감+i’의 음 산출 과정

	[kam i]	Onset	No Coda
a.	kam.i	*	*
b.	☞ ka.mi		

<표 1>의 경우는 입력형이 단일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형태 경계는 보이지 않는다. <표 2>는 연음이 일어나는 경우로서 형태 경계(|)와 음절 경계(.)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즉, 위 두 경우에 음절화는 형태 경계와 무관하게 진행되며 단지 음절 말음을 최소화하려는 No Coda 제약과 CV 구조를 선호하는 Onset 제약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한국어에서 모음 사이에 자음이 두 개 이상 놓

이는 경우에는 연음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4) a. 감+도[감도]
b. 삶+도[삼도]

(4a)처럼 -V1C1C2V2-와 같이 분절음이 연쇄되는 경우에 C1은 선행 음절의 말음으로, C2는 후행 음절의 두음 자리에 연결된다. 이것은 음절의 각 구성 단위가 하나의 분절음에만 연결된다는 *Complex 제약이 작용한 결과이다.

<표 3> ‘감+도’의 음 산출 과정

[kam to]	*Complex	Dep-IO	Max-IO	Onset	No Coda
a. ka.mto	*!				
b. ka.to			*!		
c. ka.mu.to		*!			
d. ☞ kam.to					*

<표 3>의 후보 (a-c)는 모두 음절 말음이 없으므로 No Coda 제약에 걸리지 않는다. 이 가운데 (a)는 *Complex 제약을 위반하고 있고, (b-c)는 각각 입력형의 요소가 출력형에 대응소를 갖지 못하거나 입력형에 없는 요소가 출력형에 삽입되어 있어 입력형과의 충실성 제약을 위반한다. 한편 (d)는 No Coda 제약을 위반하기는 하지만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즉 No Coda 제약은 발음을 편하게 하되 입력형과의 충실성 조건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하위 제약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같은 유표성 제약이라도 *Complex 제약은 No Coda 제약보다 상위에 있음을 (4)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의 음절말 자음군단순화 현상(‘삶’[삼], ‘삶+도’[삼도])은 *Complex 제약이 충실성 제약인 Dep-IO나 Max-IO보다 상위의 제약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삼+도’의 음 산출 과정

[salm to]	*Complex	Dep-IO	Max-IO	Onset	No Coda
a. salm.to	*!				**
b. sam.to			*		*
c. sal.mu.to		*!			*

그러나 *Complex 제약이 Max-IO 제약보다 무조건 상위에 놓인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어의 이중모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입력형의 요소가 출력형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5) a. 고향[고향], 어려운[어려운], 얘기[얘기]
- b. 왜[왜], 광장[광장]
- c. 의의[의의~의이]

<표 5> ‘고향’의 음 산출 과정

[kohjaŋ]	*Complex	Dep-IO	Max-IO	Ident-IO(F)	Onset	No Coda
a. ko.hjaŋ	*!					*
b. ko.haŋ			*			*
c. ko.hiŋ			*	*!		*

(“”은 잘못 예측된 제약 순위로 인해 최적형이 된 후보를 가리킨다.)

<표 5>에서 보인 제약 위계에 따른다면 후보 (a)는 입력형의 분절음이 가진 자질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보다 상위의 제약인 음절 조건(*Complex)을 위반하므로 최적형이 될 수 없다. 음절 조건(*Complex)을 지키는 후보는 (b)와 (c)인데, (b)와 (c)는 둘 다 충실성 제약인 Max-IO를 위반하고 있지만 하위 제약을 가장 적게 위반하는 (b)가 결국 최적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Complex 제약은 음절핵과 음절비핵에 대하여 상이한 등급을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Complex 제약을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6) *Complex 세부 제약

- *Complex(P): 음절핵(peak)에는 하나의 분절음만 연결된다.
- *Complex(M): 음절비핵(margin)에는 하나의 분절음만 연결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한국어의 음절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유표성 제약 및 충실성 제약들 사이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7) 한국어의 음절 관련 제약의 위계

*Complex(M) ≫ Dep-IO ≫ Max-IO, Ident-IO(F) ≫ *Complex(P),
Onset, No Coda

이러한 제약 순위에 따라 다시 ‘고향’의 음 산출 과정을 보기로 하자.

<표 6> ‘고향’의 음 산출 과정

[kohjaŋ]	*Complex(M)	Dep-IO	Max-IO	Ident-IO(F)	*Complex(P)	Onset	No Coda
a. ⇐ ko.hjaŋ					*		*
b. ko.haŋ			*!				*
c. ko.hiŋ			*!	*			*

<표 6>은 음운론적으로 유표적인 음절형 후보 (a)가 최적형으로 선택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후보 (b)는 No Coda를 제외한 다른 음절 구조 제약에 모두 적합한 무표적 음절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입력형의 분절음 /j/에 대응하는 요소가 탈락하여 Max-IO를 위반하므로 최적형이 되지 못한다. 후보 (c) 역시 (b)와 마찬가지로 음절 구조 제약을 준수하고 있지만 입력형의 분절음 /a/가 탈락하였고, 입력형의 /j/에 대응하는 출력형 요소 /i/의 음운 자질(feature)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Max-IO 제약과 Ident-IO(F)을 위반하였다. 후보 (a)는 *Complex(P)를 위반하지만, 보다 상위의 음절 제약인 *Complex(M) 제약과 충실성 제약인 Dep-IO와 Max-IO 제약을 지키므로 최적형이 된다.

3.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음절 구조 제약

앞에서 한국어의 음절핵 위치에 이중모음이 올 수 있는 이유를 Dep-IO, Max-IO, Ident-IO(F) 등 충실성 제약이 유표성 제약인 *Complex(P)를 지배하는 상위 제약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제약의 순위가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베트남어의 음절 구조는 CVC 구조인 3분지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V, CV, VC, CVC 등으로 세분된다.⁴⁾ 그리고 음절핵에 연결될 수 있는 분절음은 주모음과 이에 선행하는 활음(âm đệm)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Lê Văn Lý 1984:137). 베트남어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âm đệm’은 외국인을 위한 베트남어 학습 교재(Nguyễn Văn Huệ, 2004:28)에서는 영어로 ‘glide’로 번역하고 있다. ‘âm đệm’은 대부분 베트남 한자어 음절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모음이면서도 초성과 연결되어 발음이 되어 마치 자음 같기도 하고 잘 들리지도 않는 드러나지 않는 모음이라는 점에서 조명숙(2006)에서는 ‘숨은 음’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한자어 음절 초성과 주모음 사이에 위치하는 [◌] 또는 [u]를 ‘âm đệm’이라고 지칭하며, 남부 베트남어 발음에서는 이 음이 뒤에 나오는 모음과 결합하여 한국어의 이중모음 발음과 같은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처럼 베트남어의 주모음에 선행하는 활음은 원순성 모음만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베트남어의 음절 구조 제약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8) 베트남어의 음절 구조 제약(Peak-AC)

*P/palatal glide: 음절핵(peak)에는 모음 또는 원순성접근음이 연결된다.

4) 전통적인 베트남어 문법에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어음 이론인 음운학의 분석 방법을 따르고 있어서 베트남어의 음절 구조는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성모와 운모로 이분된다. Đoàn Thiên Thuật(2002)에서는 베트남어의 음절 구조가 성모와 운모로 나뉘며, 성모는 초성, 운모는 전이음(âm đệm)과 주모음, 종성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베트남어 음절 구조를 2분지 구조로 보든 3분지 구조로 보든 베트남어의 음절핵에 연결될 수 있는 분절음은 주모음과 이에 선행하는 활음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전술하였듯이 베트남어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자음에 비해 모음을 발음하는 데 있어 대체로 문제가 없으나 /j/계 이중모음 발음에는 특히 어려움을 느낀다. 다음은 베트남어 모어 화자가 한국어 /j/계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오류 사례이다.

(9)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 오류(김태경 2021: 129)

- ㄱ. /ㅈ→ㅊ/ 고향[고향], 먹어야[먹어아], 샴샤브[사부사부]
- ㄴ. /ㄷ→ㄸ/ 어려운[어러운], 경치[경치], 남편[남편], 형님[형님]
- ㄷ. /ㅍ→ㅑ/ 쇼핑[소핑], 있어요[이썬오], 목표[목포]
- ㄹ. /ㅍ→ㅑ/ 법률[법률]
- ㅁ. /ㅈ(체)→ㅊ(체)/ 얘기[얘기], 예[예]

(10)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모음 발음 오류(김태경 2021: 132)

- ㄱ. /j → ʒ/ 야간[ʒagan], 예[ʒə], 열심히[ʒəlʃimi], 요리[ʒori], 육[ʒuk],
중요한[ʒuŋʒohan], 용접[ʒoŋʒəp], 유명한[ʒumjəŋhan]
- ㄴ. /j → n/ 요즘[nozum], 여동생[nədɔŋsɛŋ], 요리[nɔri]
- ㄷ. /j → ʃ/ 여자[ʃəza], 자연스럽게[zaʃənsuləpɕe]

(9)는 한국어 /j/계 이중모음에서 전이음 /j/을 탈락시키고 단모음만 발음한 오류 사례이다. 이러한 전이음 /j/ 탈락 오류는 /ㅈ, ㄷ, ㅍ, ㅍ, ㅍ, ㅈ(체)/에 걸쳐 두루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j/ 탈락 현상은 선행 초성의 존재 여부나 단어 내 위치와도 무관하다. 단어 내 첫 음절의 전이음이 탈락하는 경우(‘경치[경치]’, ‘쇼핑[소핑]’ 등)도 있고, 두 번째 음절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고향[고향]’, ‘목표[목포]’ 등). ‘먹어야[먹어아]’, ‘있어요[이썬오]’처럼 초성 자음이 없는 GV(C)형 음절에서 전이음이 탈락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진다.

/j/계 이중모음 발음에서 전이음 /j/ 탈락 현상 못지않게 자주 나타나는 오류는 (10)처럼 전이음 /j/를 자음으로 대치하여 발음하는 것이다. (10ㄱ)은 /j/가 구개치경마찰음 [ʒ]로 대치된 예이고, (10ㄴ)은 경구개비음 [n], (10ㄷ)은 경구개설측접근음 [ʃ]으로 대치된 예이다. ‘야간’,

‘유명한’, ‘요리’처럼 주로 어두 음절의 두음(onset)이 비어있는 경우에 자주 나타나지만, ‘중요한’의 [ɟ]나 ‘자연스럽게’의 [ɳ]에서처럼 비어 두 음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 /j/가 구개치경마찰음 [ç]로 대치된 오류가 가장 흔하고(24건), 구개비음 [ɲ]와 경구개설측접근음 [ʎ]로 대치된 오류도 적지 않다.⁵⁾

하지만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이중모음을 발음하는 데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를 통해 /j/계 이중모음과 달리 /w/계 이중모음은 대체로 문제없이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1)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w/계 이중모음 발음 사례

- ㄱ. /과/ 완전히[wandʒəni], 대화[təwha]
- ㄴ. /과/ 월세[wɔlsɛ], 어려워[ArAwA], 원래[wallɛ]⁶⁾
- ㄷ. /기/ 위험[wifəm],
- ㄹ. /리/ 회사[hwɛsa ~ hɛsa]

이러한 발음 오류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모어의 음절 구조 제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베트남어의 *P/palatal glide 제약이 충실성 제약인 Max-IO 제약과 Ident-IO(F) 제약을 지배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제약 위계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12) 중간언어(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약 위계

*P/palatal glide ≫ Max-IO, Ident-IO(F) ≫ *Complex(P),
Onset, No Coda

(12)에 제시한 것과 같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에서는 Max-IO 제약이나 Ident-IO(F) 제약이 한국어 모어 화자처럼 *Complex(P) 제약보다 상위에 놓이지만 더 강력한 제약인 *P/palatal

5) /j/가 구개비음 [ɲ]로 대치된 사례는 6건, 경구개설측접근음 [ʎ]로 대치된 사례는 7건으로 보고되었다.(김태경 2021)

6) 단모음을 다른 단모음으로 대치하는 등 본고의 주제와 거리가 있는 오류 현상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glide에 의해 무력화된다. 아래 표는 ‘고향’에서 전이음 /j/가 탈락한 후보가 최적형으로 선택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표 7> ‘고향’의 음 산출 과정(중간언어)⁷⁾

[kohjaŋ]	*P/palatal glide	Max-IO	Ident-IO(F)	*Complex(P)	Onset	No Coda
a. ko.hjaŋ	*!			*		*
b. ko.haŋ		*				*
c. ko.hiŋ		*	*!			*

<표 7>은 베트남어의 음절핵 구조에 부합하는 후보 (b)가 최적형으로 선택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후보 (a)는 입력형에 가장 충실한 구성이지만, 가장 상위에 있는 *P/palatal glide 제약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가장 먼저 탈락한다. 후보 (b)는 전이음 /j/를 탈락시킴으로써 Max-IO 제약을 위반하고 있고, 후보 (c)는 단모음 /a/를 탈락시키고 전이음 /j/를 단모음으로 대체함으로써 Max-IO 제약과 Ident-IO(F) 제약을 동시에 위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P/palatal glide 제약을 준수하고 있는 두 후보 (b)와 (c) 가운데 충실성 제약을 가장 적게 위반한 후보 (b)가 최적형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9~10)의 예를 통해 /j/계 이중모음 오류 양상이 한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전이음 /j/ 탈락 대신 전이음 /j/를 자음으로 대체하여 발음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출력형 후보로 [ko.hʒaŋ]과 같은 유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출력형은 실제 발음 오류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전이음을 자음으로 대체하여 발음하는 일은 주로 초성 위치가 비어있는 GV(C) 구조에서 일어나고, ‘고향’과 같은 CGV(C) 구조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음절 구성에 영향이 없는 제약은 지면상 생략하기로 한다.

<표 8> ‘고향’의 음 산출 과정(중간언어)

[kohjaŋ]	*Complex(M)	*P/palatal glide	Max-IO	Ident-IO(F)	*Complex(P)	Onset	No Coda
a. ko.hjaŋ		*!			*		*
b. ko.haŋ			*				*
c. ko.hiŋ			*	*!			
d. ko.hʒaŋ	*!			*			*
e. koh.ʒaŋ				*			**!

<표 8>에서 새로운 출력형 후보 (d)는 *P/palatal glide 제약과 충실성 제약인 Max-IO는 지키고 있지만, CCVC 음절형을 포함하므로 최상위 음절 구조 제약인 *Complex(M)를 위반하게 된다. 후보 (e)처럼 /j/를 자음으로 대치하고 그 앞에 음절 경계를 두어 선행자음을 음절 말음에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No Coda 제약을 두 번 위반하게 되므로 최적형이 되지 못한다.

이처럼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에서 *P/palatal glide 제약은 Ident-IO(F) 제약을 지배하는 상위 제약이지만 *Complex(M) 제약보다 상위에 놓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위계는 ‘야간[ʒagan]’, ‘요리[ʒori]’, ‘여자[ʌəza]’ 등의 예와 다르게 ‘고향[kohaŋ]’에서처럼 /j/ 앞에 자음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j/을 자음으로 대치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Complex(M) 제약은 최상위 등급을 지니므로, ‘고향’의 경우에 전이음 /j/를 자음으로 대치하는 전략을 취하더라도 [kohʒaŋ]과 같이 음절 두음(onset) 위치에 두 개의 자음이 연결되어 최상위 제약인 *Complex(M)을 어기게 되므로 결국 가장 먼저 탈락하는 후보가 되기 때문이다. 즉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에서 목표언어인 한국어의 음운 제약(*Complex(M))과 모국어인 베트남어의 음운 제약(*P/palatal glide)이 동일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약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간언어의 제약 위계를 다시 설정할 수 있다.

(13) 중간언어(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약 위계(수정)

- *Complex(M), *P/palatal glide ≫ Max-IO, Ident-IO(F) ≫
- *Complex(P), Onset, No Coda

이러한 제약 순위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이중모음에서 전이음 /j/를 탈락시키지 않고 자음으로 대치한 오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한 ‘야간[jagan]’의 산출 과정이다.

<표 9> ‘야간’의 음 산출 과정(중간언어)

[jagan]	*Complex(M)	*P/palatal glide	Max-IO	Ident-IO(F)	*Complex(P)	Onset	No Coda
a. ja.gan		*!			*	*	*
b. a.gan			*			*!	*
c. ㄱ ㅈa.gan				*			*

위 표는 한국어 학습자가 입력형의 GV(C) 구조(/ja/)에서 전이음 /j/를 탈락시키지 않고 자음 [ʒ]로 대치한 후보 (c)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우선, 후보 (a)는 상위 제약인 *P/palatal glide를 위반하므로 최적형이 될 수 없다. 후보 (b)와 후보 (c)는 둘 다 *P/palatal glide 제약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후보 (b)는 Onset 제약과 No Coda 제약을 각각 위반하여 No Coda 제약만을 위반한 후보 (c)에 비해 유표적이다. 또한 후보 입력형 ‘야간’의 경우에는 전이음 앞에 다른 자음이 없으므로 전이음을 자음으로 대치하더라도 *Complex(M) 제약을 위반할 가능성은 없다. 즉 최상위 제약인 *Complex(M)와 *P/palatal glide 제약을 충족하는 선에서 보다 무표적인 음절 유형인 후보 (c)가 최적형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j/에 대응하는 자음의 유형이다.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가 보이는 /j/계 이중모음 발음 오류를 보면 /j/는 구개치경마찰음 [ʒ], 경구개비음 [ɲ], 경구개설측접근음 [ʎ] 등으로 대치되며, 다른 자음으로 대치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즉 경구개접근음인 /j/와 조음방법은 다르지만 조음위치가 같거나 인접한 음으로 대치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기존의 제약 순위에 따른다면 아래와

같은 잘못된 도출이 발생할 수 있다.

<표 10> ‘야간’의 음 산출 과정(중간언어) - 잘못된 도출

[jagan]	*Complex (M)	*P/palatal glide	Max-IO	Ident-IO (F)	*Complex (P)	Onset	No Coda
a. ja.gan		*!			*	*	*
b. a.gan			*			*!	*
c. ㅈa.gan				*			*
d. ㅊa.gan				*			*
e. ㅊa.gan				*			*
f. ㄴa.gan				*			*

위 표는 기존의 제약 순위에 의해 복수의 후보가 최적형으로 선택되는 잘못된 도출 과정을 보여준다. 입력형과 출력형의 대응 요소(분절음)들이 같은 자질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Ident-IO(F) 제약에 의하면 /j/가 구개치경마찰음 /ʒ/로 대치된 후보 (c)나 경구개설측접근음 /ʃ/로 대치된 후보 (d) 외에도 치경접근음 /t/로 대치된 후보 (e), 치경비음 /n/로 대치된 후보 (f)가 모두 동일한 벌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ja.gan]나 [na.gan] 등 다양한 출력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위 표에 제시된 출력형 후보 가운데 실제로 학습자들의 발음에서 나타나는 유형은 후보 (c)나 (d)처럼 /j/와 조음위치가 같은 자음이 대응하는 경우이다.

이를 음운 제약으로 설명하자면, 학습자들이 충실성 제약에 속하는 Ident-IO(F)을 위배하지만, 조음위치 자질보다는 조음방법 자질을 변화시키는 쪽을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의 중간언어에서 조음위치 자질을 유지하는 제약이 조음방법 자질을 유지하는 제약보다 더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Ident-IO(F) 세부 제약들 간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14) Ident-IO(F) 세부 제약들 간의 순위

Ident-IO(pl) ≫ Ident-IO(mn)

아래 표는 지금까지 알아본 제약 위계를 기반으로 중간언어에 나타

난 ‘야간’[ʒa.gan ~ na.gan ~ ʌa.gan]의 산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표 11> ‘야간’의 음 산출 과정(중간언어)

[jagan]	*Complex (M)	*P/palatal glide	Max-IO	Ident-IO (pl)	Ident-IO (mn)	*Complex (P)	Onset	No Coda
a. ja.gan		*!				*		*
b. a.gan			*!				*	*
c. ㅉ ʒa.gan					*			*
d. ㄴ na.gan					*			*
e. ㅅ ʌa.gan					*			*
f. ㅈ ʌa.gan				*!				*
g. na.gan				*!	*			*

<표 11>에 보이듯이 가장 상위에 놓인 *Complex(M) 제약과 *P/palatal glide 제약을 만족시키는 후보군(b~g) 가운데 Max-IO 제약, 그리고 Ident-IO(mn) 제약보다는 Ident-IO(pl) 제약을 만족시키는 후보(c, d, e)가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위의 표는 충실성 제약에 속하는 세부 제약들 간의 위계로 인해 출력형(표면형)이 결정되며, 이러한 필수적인 제약들을 최소로 위배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출력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지금까지 관찰한 /j/계 이중모음 관련 오류 양상을 종합하여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가 지닌 제약의 위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 중간언어(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약 위계(최종)

*Complex(M), *P/palatal glide ≫ Max-IO, Ident-IO(pl) ≫ Ident-IO(mn) ≫ *Complex(P), Onset, No Coda

(15)를 2장의 (7)에서 제시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음절 제약 위계와 비교해 보면, 베트남어의 음절핵 구성 제약이 추가되고 자질 변화 금지

(Ident-IO(F)) 제약 범주 안에서 보다 세분된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서로 유사한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에서 /j/계 이중모음과 관련한 오류 양상을 토대로 중간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의 종류와 그 지배 관계를 알아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제약 위계와 비교하였다.

기존의 분석에서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과정에 나타나는 /j/계 이중모음 발음 오류를 모국어 음운 체계의 영향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모국어의 간섭이라고 보는 기존의 설명 방식으로는 학습자의 모국어 음운 체계에 없는 음소가 중간언어에 사용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동일한 분절음에 대해 음운 탈락과 대치 등 다양한 오류형이 나타나는 현상 역시 이해되지 않는다.

/j/계 이중모음에서 전이음 /j/가 탈락하는 패턴과 /j/가 자음으로 대치되는 패턴에 표면적으로는 공통점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오류가 공통적으로 무표적 음절 구조를 지향하는 음운 제약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베트남어 중성 연결 제약에 따르면 /j/계 이중모음은 단모음에 비해 발음하기 어렵고, 이 제약은 충실성 제약을 무력화할 정도로 강력하다. 그래서 한국어 학습 초기에 많은 베트남어 모어 화자들이 /j/를 탈락시키거나 /j/와 조음위치가 유사한 자음으로 대치함으로써 무표적인 음절 구조를 만든다. /j/를 탈락시킬지 다른 자음으로 대치할지는 목표음의 음절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CjV형에서는 /j/를 자음으로 대치할 경우 CCV라는 유표성이 더 높은 구조가 생성되므로 자음 대치 대신 /j/ 탈락이라는 전략을 선택한다. 반면, 초성 자리가 비어있는 jV형에서는 /j/를 탈락시켜 /V/형을 생성하기보다 /j/를 자음으로 대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장 무표적인 음절형인 CV형이 만들어진다. 탈락과 대치라는 전혀 다른 선택이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j/계 이중모음을 피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위해 공모(conspiracy)하고 있는 것이다.⁸⁾

두 언어 간 음운 대조 방법론에 의하면 제2언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사례들은 모국어의 간섭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j/계 이중모음 오류로 나타난 구개치경마찰음 /ʒ/나 경구개설측접근음 /ʒ/는 한국어나 베트남어 초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⁹⁾ 학습자들의 모국어 자음 체계의 영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본고에서는 중간언어에서 이처럼 목표언어와 모국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발음이 나타나는 원인을 입력형-출력형 간 충실성 제약의 일종인 Ident-IO(F) 세부 제약들 간의 위계로 설명하였다. 베트남어 모어 화자들의 한국어 발음에서는 입력형의 조음방법 자질보다 조음위치 자질을 유지하는 것이 선호된다. 다시 말해 /j/계 이중모음을 회피하는 전략으로써 /j/의 조음위치와 유사

8) ‘공모(conspiracy)’의 개념은 Kisseberth(1970)에서 처음으로 음운론에 도입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표기규약(notational convention)으로는 하나로 묶일 수 없는 복수의 규칙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공모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Mohanan(1993)은 이처럼 규칙들을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요소를 견인자(attractor)라고 명명한 바 있다. 전상범 외(1997)에서는 한국어에서 /마음/에서 /-/가 탈락하여 [맘]으로 발음되는 현상, /구+어/의 /ㄱ/가 전이음 /w/로 바뀌어 [귀]로 발음되는 현상, 반대로 /비+에/에서 전이음 /j/가 삽입되어 [비에]로 발음되는 현상이 모두 모음연접(hiatu)을 피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공모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았다.

9)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초성 체계 대조(조명숙 2006)

조음방식			순 음		치 조 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양순음	순치음	혀끝 안구부림	혀끝 구부림			
장 애 음	파열음	유기 무성	ㅍ*		ㅍ				
		무기 무성	ㅍ [p]		ㅌ	/t/[tr]	(ㅍ)	ㅍ	?
		유성	ㅂ		ㄷ				
	파찰음	거센 소리					ㅊ*		
		된소리					ㅈ*		
		예사 소리					ㅉ*		
마찰음	무 성		/t/[ph]	(ㅅ)	/s/[s]		(ㅋ)	ㅎ	
	유 성		/v/[v]	(ㅆ)	/z/[r]		(ㄱ)		
공 명 음	비 음	ㅁ		ㄴ		/n/[nh]	ㅇ		
	유 음			ㄹ			/ɸ/*[ng]		

하면서 조음방법은 다른 대체음으로 구개치경마찰음 또는 경구개설측 접근음이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중간언어에서 /j/계 이중모음을 회피한다는 목적은 공통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각기 다르다. 이것은 /j/ 탈락과 자음 대치가 공통의 견인자(attractor)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 된다. ‘야간’[ʒa.gan]의 사례에서 전이음의 완전한 탈락 대신 해당 분절음의 방법 자질(manner feature)만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하는 이유는 음절 초성을 유지하는 편이 무표적인 음절 구조에 보다 가깝기 때문이다. 반면, ‘고향’[ko.haŋ]의 경우에는 전이음 /j/의 일부 자질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는 유표적 구조를 피할 수 없으므로 /j/를 탈락시키는 전략을 선택한다. 특정 분절음이 일정하게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음의 종류와 해당 분절음이 속한 음절의 구조에 따라 분절음이 탈락하거나 다른 음으로 대체되는 등 오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모국어 음절 구조와 같은 음운 제약의 영향도 있지만 음운 구조가 지니는 보편성과 유표성도 함께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제2언어 학습 과정에서 모국어의 전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모국어 간섭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모국어에 없는 구조를 피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다수의 전략(규칙)이 공모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서 보인 현상들은 음운 제약들이 갖는 본질적인 역할과 언어 현상의 유기적인 측면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Abstract]

Syllable constraints and complicity effects in th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Focusing on the pronunciation of Korean diphthongs by native Vietnamese speakers

Kim, Taekyung(Hanyang University ERICA)

This study presents an Optimality Theoretic account of /j/-diphthongs in Vietnamese speakers learning Korean (hereafter KSL). Vietnamese KSL presents an interesting case in which the Korean /j/-diphthongs are pronounc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yllable structure of the target word. Sometimes, the transitional sound /j/ is dropped and sometimes replaced by another consonant. The main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these seemingly different phenomena are all caused by a single motive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syllable core composition in Vietnamese. In addition, the native language constraint rankings interact with target constraint rankings in a specific way. To formally support this, I established a hierarchy among syllable structure constraints (*Complex(M), *P/palatal glide, *Complex(P), Onset, No Coda) and faithfulness constraints (Max-IO, Ident-IO(F)) and detailed sub-constraints belonging to Ident-IO(F).

Key words : syllable constraints, second language acquisition, Vietnamese speakers, Optimality Theory, /j/-diphthong, interlanguage, pronunciation error

[참고문헌]

■ 기본자료

『외국인 한국어 대화 말뭉치』(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https://hkli.hanyang.ac.kr>)

■ 단행본

진상범 외. 『최적성이론』, 서울: 한신문화사, 1997.

Đoàn Thiện Thuật, *Ngữ âm tiếng Việt*, NXB ĐH Quốc gia Hà Nội, 1999.

Jakobson, R., *Selected Writings 1: Phonological Studies*, The Hague: Mouton, 1962.

Lê Văn Lý, *Le Parler Vietnamiens*. Huong anh. Paris, 1984.

■ 논문 및 기타 자료

강정희, 「베트남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 분석 및 교육 방안: 자음 대조 및 학습자 자음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법교육학회 제15차 전국학술대회논문집』, 2011, 121-30면.

김선정, 「다문화 가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나라사랑』 119, 외솔회, 2010, 131-160면.

김소현·김영주, 「베트남인 화자의 한국어 과찰음 발음 연구」, 『한국어학』 59, 한국어학회, 2013, 145-68면.

김영선,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경음화 발음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4, 51-74면.

김태경, 「베트남인 화자의 한국어 자음 발음 오류: 결혼이주여성의 자유발화를 대상으로」, 『국어교육』 163, 한국어교육학회, 2018, 345-372면.

김태경,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 과정에 나타난 /j/계 이중모음 오류 분석」, 『우리말글』 88, 우리말글학회, 2021, 122-147면.

김희정·박시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발음 오류 분석과 발음 교육: 평음·격음·경음을 중심으로」,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9, 89-103면.

신정애,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조명숙, 「한국어·베트남어 대조언어학적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6, 363-91면.

Do, Ngoc Luyen, 「베트남 남부 방언을 쓰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안 연

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Kisseberth, C., The interaction of phonological rules and the polarity of language. Ms.,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Ill. 1972.

McCarthy, J. & A. Prince,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In J. N. Beckman, et al. ed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ccasional Papers 18: Papers in Optimality Theory*, 1995, pp. 249-384.

Mohanan, K. P., Fields of attraction in phonology, In J. Goldsmith, ed., *The Last Phonological Rule*, 1993, pp. 61-116.

Prince, A. & P. Smolensky,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Ms. Rutgers University, 1993.

투고일: 2024.07.08 심사일: 2024.08.10 게재확정일: 2024.08.15